

# 미셸 푸코와 만프레도 타푸리의 역사이론 비교연구

-건축, 이데올로기, 권력의 계보학-

정인하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 1. 연구목적과 배경

이 글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와 만프레도 타푸리(Manfredo Tafuri)의 역사이론을 비교하고자 한다. 물론 이 두사람이 다루었던 주제나 분야가 워낙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이론에 대한 평면적인 비교가 과연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푸코는 주로 르네상스 이후 서구문명이 기초한 보편적인 지식체계와 담론의 역사를 고고학이라는 매우 독창적인 방법론으로 찾아 나갔고, 타푸리의 경우 독일의 네오-막시즘을 기반으로 근대도시와 건축의 역사라는 특수한 분야를 탐구하였다. 푸코는 권력과 지(知)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주로 의학체계, 사법제도, 경제체계와 언어영역에서의 담론들과 그것이 기초하는 언표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였지만, 건축 혹은 건축가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반면 타푸리는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생성과정에 건축가들의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고 보고, 결국 근대 이후의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거의 동시대를 살고갔지만 (푸코는 1926년생이고, 타푸리는 1935년생이라서 약간의 나이차가 존재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를 관계 맺을만한 접점은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1970년대 이후 미셸 푸코가 권력과 관련하여 건축과 공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만프레도 타푸리가 주도한 베니스 대학의 건축연구소(Istituto universitario di architettura di Venezia)에서, 푸코가 주장한 헤테로토피아<sup>1)</sup> 개념을 건축적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론화시키는 세미나를 진행시킨 바 있다. <sup>2)</sup> 이것이 이 두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유

1) 이 말은 푸코가 유토피아와의 유비를 위해 만들어낸 단어이다. 유토피아는 본래 그리스어의 없는 것을 가리키는 'ou'와 장소를 가리키는 'topos'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헤테로토피아는 'ou' 대신에, "다른 성질의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hétéro'라는 말이 덧붙은 말이다. 그래서 그것 내부에 얼마간의 다른 성질의 요소를 포함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2) 이 세미나의 주요 참석자는 Georges Teyssot, Massimo Cacciari, Franco Rella, Manfredo Tafuri 등이다. 이 세미나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글들이 발표되었다: Georges Teyssot, 'Heterotopias and the History of Architecture', in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ed. K.Michael Hays), Columbia Books of Architecture.

일한 점적이고, 또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규명해 나갈 부분이다.

이 글은 미셸 푸코와 만프레도 타푸리의 역사이론을 비교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생각을 전면적으로 다룰 생각은 없다. 그것은 너무나 방대한 양이어서 이 글에서 모두 다루기가 불가능하다. 다만 근대 이후 형성된 사회제도로서의 건축 존재를 보다 명료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끌어 들일 것이다. 이 때문에 이 글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을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로 이들이 대변하고 있는 두가지 중요한 관점들, 즉 타푸리가 주장한 이데올로기적 비판이론과 푸코가 주장한 계보학적 방법론이 건축에 적용되었을 때, 과연 건축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이 경우 선행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 이 두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된 기반이 무엇이며,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이나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푸코가 했던 한 인터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는 막시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마르크스의 생각에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관련되지 않는 역사를 쓴다는 일이 불가능할 것이며, 마르크스가 개척해 놓은 인식의 지평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 또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올바른 문제의식은 마르크스와 지금의 역사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를 묻는 것”<sup>3)</sup>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당대의 막시스트(여기에는 타푸리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과 자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푸코 자신은 막시스트들 처럼 권력을 억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대신 그것을 행사되는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권력이 부정적인 방법으로만 자신의 효과를 발휘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깨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권력이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욕망

이나 지식의 차원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언급은 이 푸코와 막시즘, 그리고 타푸리와 같은 네오-막시스트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즉, 푸코나 타푸리 둘다 건축을 사회제도의 일부로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마르크스가 열어놓은 인식의 지평에서 그들은 건축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타푸리에게 18세기 이후 건축가들에 의해 제기된 건축과 도시의 이론들은 자본주의 생산체계를 공고히하고, 그것을 자연스런 것으로 신비화시키는 이데올로기의 일부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부정해야할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푸코는 건축이 권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일종의 도구이다. 건축은 푸코가 주장한 미시정치학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작동 메카니즘의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소통시키며, 그들의 상호관계를 코드화시키는 요소”<sup>4)</sup>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두번째로, 만프레도 타푸리와 미셸 푸코의 생각을 비교해 봄으로써 과연 건축에서 진정한 역사이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타푸리와 푸코 둘다 역사적 방법론을 통해 생각을 전개시켜 나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래서 이들의 논의는 건축역사가 가지는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리라고 본다.

오늘날 건축교육에서 역사가 가지는 의미는 과거와는 매우 달라졌고, 따라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축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건축사가들마다 극단적으로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것은 다른 역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역사가의 관점을 객관화하고 과학적으

1998; Manfredo Tafuri, 'The Historical Project', in *Oppositions*, 1979년 여름호.

3) Michel Foucault, *Power/Knowledge* (지식과 권력, 홍성민 옮김), 나남출판, 80쪽.

4) Michel Foucault, 'Space, Knowledge and Power', interview with Paul Rabinow, *Skyline*, 1982년 3월. 이것은 다음의 책에 재수록됨 :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ed. K.Michael Hays), Columbia Books of Architecture, 1998.

로 논거할만한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20세기초까지 역사의 서술은 세가지 원칙에 근거해야만 했다. “먼저 역사서술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과 실제로 일어났던 행위를 그려내야 했고, 두 번째는 역사가가 인간의 의도를 이해하여 일관되게 이야기를 구성해야 했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일어난 사건과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 간에 일관된 인과관계를 이끌어내어야 했다.”<sup>5)</sup> 그러나 오늘날 “역사의 문제를 신비한 기원의 문제로 환원시키려는 노력은 19세기의 낙관주의에 바탕한 것으로 본다.”<sup>6)</sup> 역사에서 금과옥조로 작용하는 인과성의 원칙조차 후기 구조주의자들에 의해 거부된다. 역사가 기원을 가지지 않고, 탈 중심적이며, 불연속적이고, 비인과적이라면 과거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더욱이 역사의 기술(記述)은 언어의 한계와 겹치는데, 과연 언어가 과거의 모습들을 명확히 표상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런 의문들 때문에 오늘날 건축사가들로서 하여금 끊임없이 현실과의 단절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언어와 언어 사이에서, 현실의 단편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단편들과 그들 배후에 놓여있는 의미사이에서 드러나는 그 어두운 심연은 계속해서 건축사가들을 미궁으로 빠트리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셸 푸코나 만프레도 타푸리는 과거와는 다른 역사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들은 역사를 균질하고 연속된 것으로 환원시키려는 모든 시도 뒤에는,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시키려는 불손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그들은 역사가 규범적인 서술과 현상들의 단순한 나열로서는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냉엄하게 비판함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본질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래서 그것은 특정한 사실에 대한 비난이나 거부가 아니

라, 지배적인 이념이나 행동방식 그리고 사회적 상황을 무반성적이고 습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지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된다면, 건축역사는 과거처럼 더 이상 디자인의 도구나 지침서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의 더미들을 모으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동질적이고 공허한 역사의 진행과정을 폭발시켜 그로부터 하나의 특정한 시기를 끄집어 내기 위해 과거를 인지한다.”<sup>7)</sup> 건축역사가 더 이상 나타난 현상의 서술이 아니라 그들의 해석에 비중을 두게 될 경우, 그들의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되는 것은 엄밀함과 정확성이 아니라 그 해석이 갖는 유용성이다. 이 글은 타푸리와 푸코의 이같은 생각들을 바탕으로, 그들이 끄집어낸 역사적 파편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2. 만프레도 타푸리의 이데올로기 비판

만프레도 타푸리의 지적 여정을 훑어보면, 적어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점에서 1969년을 경계로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1969년 이전의 시기에 그가 주로 다루었던 주제는 세가지였다. 즉, 디자인 프로세스와 방법론, 건축적 맥락으로서의 도시연구,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의 건축언어이다. 이들은 모두 1960년대 건축계를 지배했던 주요 주제들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의 타푸리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 역사보다는 일반적인 건축이론에 치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쓴 네 번째 책인 <건축의 이론과 역사(Teorie e storia dell'architettura)>에서 상황은 달라진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앞서 출판한 책들과 비교하여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는 두 번째 판 서문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예고하는 글을 실는다. 그는 이미 10년전부터 이데올로기적인 비판을 준비해 왔

5) Georg G. Iggers, *Historiography in the Twentieth Century. From Scientific Objectivity to the Postmodern Challenge*(20세기 사학사, 임상우, 김기봉 옮김), 푸른역사, 19-20쪽.

6) Manfredo Tafuri, 'The Historical Project', in *Oppositions*, 1979년 여름호.

7) 발터 벤야민, '역사철학테제', 현대문학비평론, 한신문화사, 141쪽.

다고 하지만, 그 방향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 때가 처음이다. 거기서 그는 “첫번째 판을 낸 후 2년이 경과하면서, 이 책이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늘날 제도(institution)로서 건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두고 싶다”<sup>8)</sup>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건축은 이데올로기이다. 그것은 이데올로기를 실행하는 제도이며, 위기에 처한 분야”라고 하면서, “계급에 기반한 정치경제학이 불가능한 것처럼, (해방된 사회를 위한) 계급건축을 예상할 수 없다. 그렇지만 건축에 계급비평을 도입할 수는 있다”<sup>9)</sup>라고 선언하였다. 그때부터 그가 쓴 글에서 더 이상 디자인 이론에 관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이데올로기 비판 이론에 근거한 새로운 역사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타푸리에게는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타푸리는 이데올로기 비판을 건축 역사 해석에 어떻게 적용하였는가?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현대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타푸리 자신이 고백했듯이, “그의 역사이론은 본질적으로 이들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0)</sup>. 이들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역사발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Marxism)에 기초한다. 마르크스는 1980년에 한국의 지식층에 워낙 많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판적 역사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부분만 발췌하여 서술해 보기로 하겠다. 마르크스는 사회진보를 위해서 필요한 두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하나는 생산관계와 생산력은 일치한다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생산관계로서의 하부구조와 그 이외의 사회관계, 즉 사회의식, 정치, 법률 등으로 구성된 상부구조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사회학의 제 1 및 제 2 기본법칙이라고 불렀던 이들 원칙은, 사회체계의

내적조화 및 균형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인 것이며, 따라서 한 사회체계를 이루는 각 구성체가 상호적용하는 기본원리이다. 이들 두 법칙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사회체계 안에서 내적 모순이 발전하기 시작하며 사회체계의 각 구성체가 서로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체계는 와해되고 새로운 사회체계가 등장하게 된다<sup>11)</sup>. 이런 내적 모순은, 생산력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반면, 상부구조인 사회관계나 정치, 법률관계가 더디게 변화하는 데서 주로 발생한다. 기득권 세력은 국가권력과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이런 모순을 은폐하려 한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는 기존의 사회관계를 자연스럽고 영속적인 (naturalize and eternalize)것으로 만들어서 그 모순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과정을 여기서는 신비화(mythification)과정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사물의 진정한 인과성을 보지 못하게함으로써, 그들이 실제로는 전복될 수 있는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세계를 비역사적인 것으로 제시하며, 그것은 ‘인간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을 공공연하게 의식화시킨다.

마르크스 사후 거의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마르크스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르크스를 새롭게 해석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였다. 사물화, 소외, 휴머니즘, 헤게모니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의 마르크스를 하나의 단일한 운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 거기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장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한세기 반 동안에 그들의 저작에 가해진 다양한 해석들이 공존하고 있다. 타푸리가 표명한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하게 전개된 현대 마르크스 이론들 사이에 존재하는 변별점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을 분류해 보면, 크게 두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8) Manfredo Tafuri, Theories and History of Architecture, Harper and Row, notes to (italian) second edition, XV쪽.

9) 앞의 책

10) Manfredo Tafuri, Projet et Utopie, Dunod, 서문 9쪽.

11. 임종철, ‘마르크스의 유물사관’, 사관이란 무엇인가?, 청람, 89쪽.

막시즘을 자본주의 사회현상을 규명하는 과학으로, 혹은 인식론의 하나로 보는 경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실천강령으로 보는 경향이다. 이들 두 진영 사이에는 여러 가지 논점들이 존재한다.

먼저,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사관에서 나타나는, 끝이 닫혀 있는 극단적인 목적론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이다. 전후 서구의 막시스트들은 점차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적 이상이 객관적인 역사의 필연적 결과로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또 소련처럼 그 혁명이 이루어진 곳이라도 거기서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관점을 통해 막시즘이 가지는 이런 모순들로부터 벗어나려 하였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의 사회학자들은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해결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찾지 않고, 초계급적으로 추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들에게 정치적인 실천의 주체도 프롤레타리아가 아니고, 그 방법도 비혁명적이고 비계급적이다. 또 마르크스가 주장한 역사적 필연성이나 혁명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고, 대신 아도르노처럼 일체의 동일성, 긍정적일 것, 개념적인 것을 거부한 채 계속적으로 부정의 정신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르크스 이론처럼 끝이 닫혀진 이론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증법적 부정을 시도하는 끝이 열려진 이론임을 의미한다. 타푸리도 이런 입장을 따르고 있다. 그는 아도르노(Theodor Adorno)와 마찬가지로 헤겔의 변증법을 이어받지만, 헤겔처럼 절대정신을 향해 정반합의 지양을 주장하지 않고, 대신 '부정(negative)의 사고'를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작동시키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비판을 통해 진실에 대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타푸리와 아도르노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한다. 예술이 새로운 세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아도르노와는 달리, "그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유지되는 한 제도내에서 발전된 모든 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sup>12)</sup> 그래서

20세기 초 가장 혁신적인 아방-가르드들의 활동조차도 자본주의 체계의 발전에 도움을 준 이데올로기였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타푸리의 생각은 '변증법 없는 막시즘(marxism without dialectics)'이라는 비판을 듣게 된다.<sup>13)</sup>

두 번째 논점은 토대와 상부구조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전통적인 막시즘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을 포함하는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르네상스 시기의 명화(名畵)들이, 몇 백년이 흐른 후 경제체제가 완전히 바뀐 현재에도 왜 여전히 감동적이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그래서 현대 막시스트들은 막시즘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도출된 결론이 바로 타푸리가 <건축의 역사와 이론>의 제 2판 서문에서 쓴 내용이다. 즉, 계급예술, 계급건축은 존재하지 않지만, 계급에 기반한 예술비평, 건축비평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자체는 계급성을 가지지 않지만, 그 작품이 만들어진 정치적 배경이나, 화가와 소유주와의 관계, 화가가 속한 계급, 작품의 유통 메카니즘 등은 계급을 기반으로 비판될 수 있다고 본다. 건축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보려고 한 타푸리의 모든 논의들은 바로 여기서 그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논점은 이데올로기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이것은 이 글과 관련하여 가장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과연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은폐하려는 부르조와 계급의 거짓된 환상인지, 아니면 그것은 모든 계급에서 존재하는 편재된 사유방식이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데올로기에 계급적 가치판단이 내재되어 있는냐는 논점이 담겨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마르크스를 비롯하여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자들, 그리고 만프레도 타푸리의 대답

12) Mafredo Tafuri, *Projet et utopie*, 앞의 책, 54쪽

13) Tomas Llorens, 앞의 책, 89쪽.

은 이렇다. 사회적 존재에 의해서 이념을 해석한다는 것은 '일반화된 명제'이지만, 이데올로기란 상부구조의 정신현상만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보편성을 갖지 않고, 특정계급의 가치관에 입각해 있는 '허위의식'이다<sup>14)</sup>. 따라서 그것은 철저히 부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만하임 등과 같은 상대주의자들은 이데올로기를 '체계화된 모든 유형의 이념'으로 규정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계급, 집단의 이념 체계에서 허위의식의 잠재성을 추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마르크스가 "(지배계급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는 허위의식이다"라고 썼던 반면, 만하임은 "(지배계급이거나 피지배이거나 상관없이) 모든 이데올로기는 허위의식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일반적 현상이며, 보편적이고 가치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이념체계로 규정되었다. 그는 마르크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가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생각과 경직된 사회이분화를 비판하면서, 이데올로기의 가치를 상대화하여, 이들은 역사적 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처럼 가치를 상대화하려는 주장자체를 타푸리는 이데올로기로 몰아부친다. 이것은 타푸리가 쓴 <프로젝트와 유토피아(Progetto e Utopia)>에서 잘 나타난다. 바로 여기서 타푸리와 푸코 사이의 생각이 명백하게 엇갈린다.

결론적으로 타푸리는 계몽시대부터 시작된 지식인-건축가들의 모든 지적 활동은 모두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이데올로기였다고 본다. 그렇지만 건축이 보다 비극적인 것이, 계몽시대 이후 모든 건축적 논의들이 자본주의적 생산 메카니즘이 자율적인 메카니즘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로서의 충실히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데올로기적 장애물로 전락하는 징후가 보인다는 것이다. 생산체제 내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마저도 스스로 비판하고 발전의 요소로 삼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되면서,

건축은 더 이상 그 체제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의 유지에 걸림돌이 된 것이다. 그래서 타푸리는 매우 묵시록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건축이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자본주의의 이익에 봉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건축은 새로운 사회(비자본주의적)를 위한 비전을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의 속성은 이데올로기, 즉 자본주의에 의해 발전의 초기 단계에 도입된 거짓된 의식이라는 것이다."<sup>15)</sup>

### 3. 미셸 푸코의 권력의 계보학

미셸 푸코는 여러 가지 점에서 타푸리와 다르게 건축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생각은 막시즘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1980년대 이후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가 현대건축에 미친 영향은 세가지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첫번째는 헤테로토피아(hétérotopia)로 대변되는 그의 공간 개념이고, 두 번째는 '고고학'이라고 불리는, 담론의 역사에 대한 특이한 방법론이고, 마지막으로 '계보학'이라고 불리는 권력과 지식에 대한 독특한 분석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 동일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건축가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차이점을 가지며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은 건축가들이 공간이라는 개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푸코에게 권력과 공간의 문제는 동일한 차원에서 작동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건축을 언급할 경우 이 두가지는 항상 함께 언급된다.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주름(pli)' 개념이 그의 위상기하학적 공간개념에서 도출된 것처럼,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 역시 권력의 계보학을 바탕으로 깔고 있지만, 건축가들은 헤테로토피아란 개념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글도 이런 논의를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푸코가 건축에 대해

14) 송호근, 지식사회학, 나남, 1990년, 202쪽.

15) Manfredo Tafuri, *Projet et Utopie*, 앞의 책, 154쪽.

직접 견해를 밝힌 것은 두가지 정도이다. 하나는 <또다른 공간들 (Des espaces autres)> 16)이라는 짧은 글을 통해서이고, 또다른 하나는 스카이라인(Skyline)지(誌)의 기사인 폴 래비노(Paul Rabinow)와의 대화를 통해서이다.<sup>17)</sup> 이외에도 <권력의 시선(The Eye of Power)>이라는 제목의 인터뷰<sup>18)</sup>를 통해서, 그리고 <감시와 처벌(Surveiller et punir)>에서 일망감시시설 (Panopticon)을 다루면서 건축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단편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글과 대화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푸코가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건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가 이야기하는 공간은 일반적으로 건축계에서 통용되는 공간의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 점은 푸코를 건축쪽으로 끌어들이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푸코는 1960년부터 주요 저작들을 통해 근대 이후 형성된 이성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에 대해 고고학적인 탐구를 지속하였다. 그가 보기에는 건축도 ‘지식의 공간화’와 연관된 규율가운데 하나라고 보았다.”<sup>19)</sup> 즉, 18세기 이후 서구사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새로운 공간배치가 이루어지는데, 건축은 권력의 효과적인 팽창을 허용하고 그것을 공간적으로 틀을 짜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푸코에게 “공간은 지식과 권력에 관한 담론들이 실제 권력관계 속으로 전환되는 그런

장소이다.”<sup>20)</sup> 그리고 “거창한 지정학에서 작게는 작은 삶의 공간을 지배하는 전략에 이르기까지, 또는 교실로부터 병원과 기타의 제도적인 건축양식에 이르기까지 공간의 문제는 권력의 작동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sup>21)</sup>

미셸 푸코는 이같은 공간개념이 그동안 주요 철학자들에 의해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점을 매우 이상하게 여긴다. 그의 눈에는 칸트, 헤겔, 훗설, 하이데거, 베르그송에 이르는 서양의 주류 철학자들이 주로 시간을 중심으로 생각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sup>22)</sup> 심지어 구조주의까지도 이런 시간 철학을 계승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푸코는 “오늘날을 공간의 시대로”<sup>23)</sup>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는 “동시성, 병존, 근접과 이격, 산개의 시대에 살고 있다”<sup>24)</sup>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공간은 헤테로토피아로 대변되는, 그 자체로 이질적이고, 복수적이며, 일시적인 것이다. 푸코가 생각하기에 서양에서 공간개념의 역사는 세단계로 변천해 왔다고 생각한다. 먼저 “장소의 위계와 대조, 그리고 무질서한 섞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중세의 공간이다. 여기에는 성(聖)과 속(俗),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와 농촌이 대립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천상의 공간, 하늘, 그리고 지상의 공간이 위계를 가지고 존재한다.”<sup>25)</sup> 푸코는 이것을 ‘국지화의 공간(space of localization)’<sup>26)</sup>이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갈릴레오에서 시작하여 데카르트와 뉴턴에 이르는 과학혁명을 통해, 중세의 공간은 무한하게 연장될 수 있는 ‘연장(extension)의 공간’<sup>27)</sup>으로 대체되었다. 여기서는 세계가

16) 이 글은 Centre d'études architecturales (Paris, 1967년 3월)에 실렸다가, 다시 L'Architettura (1968년 4월)에 발췌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글은 Architecture Mouvement Continuité (1984년 10월)에 다시 실린 것이다.

17) 이 글은 'Space, Knowledge, and Power'라는 이름으로 Skyline지 1982년 3월에 실렸고, 다시 <Foucault Reader, Paul Rabinow(ed.), Pantheon, New York, 1984년>에 다시 실리게 된다.

18) 이 글은 Jean-Pierre Barou와 Michelle Perrot와의 대화를 엮은 것으로, 다음의 책에 다시 실리게 된다. Power/Knowledge :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by Michel Foucault, 1972-1977, Colin Gordon (ed.), New York, Pantheon Books, 1980.

19) Joan Ockman(ed.), Architecture Culture 1943-1968, Columbia Books of Architecture, 1999년, 419쪽.

20) 앞의 책.

21) Michel Foucault, 'The Eye of Power', Power/Knowledge (지식과 권력, 홍성민 옮김), 나남출판, 184쪽.

22) 헤겔의 역사철학에서 등장하는 변증법의 개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베르그송이 주장한 '지속'의 개념은 대표적인 예이다.

23) Michel Foucault, Des autres espaces, 앞의 책, 423쪽.

24) 앞의 책.

25) 앞의 책.

26) 앞의 책.

27) 앞의 책.

동질하고 균일한 중성의 공간으로 간주되었고, 각각의 장소들은 균질한 이 공간 속의 한 곳을 점하게 된다. 서구의 근대문명이 기초하는 공간개념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지만 미셸 푸코는 이런 공간개념을 거부하고, 대신 국지화의 공간과 유사한 '배열의 공간'<sup>28)</sup>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동질하고 빈 공간 속에 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질로 충만한, 아우라가 있는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결코 동질적이지 않고, 중첩되지 않으면서 위치를 규정하는 관계의 다발로 이루어진 것이다."<sup>29)</sup> 이것이 형태적으로 나타나면, 계열과 망(network)의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공간개념은 질 들뢰즈를 포함한 후기 구조주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미셸 푸코의 이런 공간개념은 권력의 계보학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사실 1970년대 이전까지 푸코의 초기 저작들, 즉 <고전시대의 광기의 역사>, <말과 사물>, <지식의 고고학>을 관통하는 주제는 고고학이었다. 이것은 역사를 담론적인 사건들로 가득찬 불연속적인 하나의 장(場)으로 본다. 그리고 그 장은 언표 계열들로 표현되는 그 무엇이다. 고고학은 이렇게 다양한 담론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질서로 실천되며, 그것이 어떤 계열을 이루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미셸 푸코는 역사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언표들의 계열을<sup>30)</sup> 정확히 구축해 낼 때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본다. 이런 고고학의 개념은 그의 전체 사유체계 속에 담겨

있다. 그렇지만 1970년 이후에 고고학이란 말 대신에 계보학이란 말을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푸코의 사유에 있어서 1968년 프랑스의 5월 혁명은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변화가 이 전의 생각들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일련의 급진적인 사건들을 목격한 후, 그는 이론적 탐구보다는 정치적 실천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게 다가왔다. "그것은 구조주의에 영향을 받은 담론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적 실천 및 기술, 그리고 권력과 지식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로 관심과 방법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sup>31)</sup> 고고학에서 계보학으로의 전환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다. 계보학의 개념은 푸코가 1970년에 발표한 <담론의 질서(L'ordre du discours)>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다가, 1971년에 발표한 <니체, 계보학, 역사(Nietzsche, Génomologie, Histoire)>에서 보다 분명하게 정의되었고, 그 이후에 발표한 <감시와 처벌>과 <성의 역사>에서는 주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공간의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푸코는 <담론의 질서>에서 고고학과 계보학을 간단하게 비교하면서, 이런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즉, "고고학적 탐구가 주로 담론의 출현과 변환을 지표화하고 둘러싸고자 했다면, 계보학은 그 담론들이 사회적으로 실천되는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다."<sup>32)</sup> 이 경우 "계보학은 담론들의 형성과 변환을 가능케 해주는 지층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층 내부에서 벌어지는 있는 힘들의 역학관계를 통해 그런 변환을 설명하는 것이다."<sup>33)</sup> 그리고 그런 변환을 불러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권력이라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이정우는 고고학과 계보학의 관계를 정역학과 동역학에 비유하기도 하였다.<sup>34)</sup>

28) 앞의 책.

29) 앞의 책

30) 계열의 개념은 후기구조주의자들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스토아 학파에 의해 생성되었고, 라이프니츠에 의해 발전된 개념이다. 이 개념은 구조주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구조주의가 탐구하는 상징적 차원의 요소들은 항상 계열을 이룸으로써 작동한다. 이들 계열들은 서로 불연속을 이루며 따라서 단일한 존재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Michel Foucault, L'archéologie du savoir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옮김), 민음사, 18-9쪽>에 나타나는 이정우의 해설 참조.

31) 이광래, 앞의 책, 85쪽.

32) Michel Foucault, L'ordre du discours, 앞의 책, 48쪽.

33) 이정우, '푸코사상의 여정', 담론의 질서, 138쪽.

34) 앞의 책.



이처럼 1970년 이후 미셸 푸코는 권력의 문제를 다루지만, 그렇다고 전통적인 역사학에서처럼 주요 정치적 사건이나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대신 병원, 감옥, 노동자주택, 성(性)과 같은 매우 미시적이고 주변적인 주제를 끄집어 낸다. 그러면서 인간과 사회 속에 형성된 제도, 공간, 정치적 태도, 그리고 배제된 금기사항들을 통해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추적하였다. 이때 그가 취한 입장은 당시 막시스트들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이 점은 푸코가 막시스트들이 제기한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한데서 잘 드러난다. 그가 보기에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개념은 19세기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세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로 이 개념이 항상 진리(과학)와 대립 속에 있다는 것이다.”<sup>35)</sup> 푸코는 막시즘도 하나의 담론일 뿐이고, 그것은 상대적인 가치만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모든 담론들은 하나의 관점일 뿐이다. 하나의 담론이 다른 담론보다 더 가치있다면, 그것은 진리로서 그것의 내재적인 성질 때문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그 담론이 차지하는 역할이라는 인식론 외적인 근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의 눈에는 막시즘은 스스로를 과학이라고 자처하면서, 스스로에 그릇된 합법성을 부여했고, 이로 말미암아 막시스트들은 자신을 보편의 담지자로 대중위에 군림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개념은 이성이 해방시키고자 했던 그 대상(인간)을 오히려 지배하게 되는 하나의 예라고 보았다. “두 번째로 이것은 필연적으로 주체를 상정하고 있다.” 그것이 노동자 계급이든, 아니면 지식인이나 아방-가르드 예술가이든 이데올로기는 주체를 필요로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푸코는 기존의 형이상학에서 이야기하는 초월적인 주체나, 또 기원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는 저자로서의 주체를 거부한다. 단지 담론 속에서 기능하는 위치만을 부여받은 주체만

을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눈에는 이데올로기 개념이 다양한 사회현상, 특히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세 번째로 이데올로기 개념은 토대와 상부구조의 구분을 통해 등장하는데, 푸코는 구분자체를 거부한다. 막시즘은 이런 구분을 통해 전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일관된 전체로 설명하려 하는데, 푸코 자신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또 토대와 상부구조의 구분을 통해, 생산력을 소유한 계급이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푸코는 “담론이 이미 권력이며,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sup>36)</sup> 막시즘은 노동자와 부르주아 사이의 계급관계를 넘어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미시적인 권력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남자와 여자,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감옥의 간수와 수형인, 그리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배와 억압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인간은 삶을 영위하며 하루에도 도처에서 일어나는 감시와 소외, 그리고 억압의 메카니즘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푸코는 분산되어 있고, 불연속적이며, 비동기화된 힘의 복수성을 제시한다. 전체 사회가 하나의 핵심개념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고 보고, 오히려 수많은 불연속적인 단층들로 구성된 복수의 담론들과, 그것이 실천되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4. 사회제도로서의 건축

지금까지 푸코와 타푸리 사이에 존재하는 시각의 차이점들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 이런 상이한 시각을 가지고 건축현상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다르게 이해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건축을 둘러싸고, 이 두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논점은 크게 네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시대구분이다. 근대 이후 서구사회를 특징 짓는 ‘담론(discours)’에 대한 시대적 구분은 푸코의 초기저작부터 명료하게 나타났고, 그 관

35) Mark Foster, Foucault, Marxism, History(푸코, 마르크시즘, 역사, 이정우 옮김), 인간사랑, 101쪽.

36) 앞의 책, 102쪽.

점은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물론 푸코가 건축만을 위한 시대구분은 하지 않았지만, 건축도 한 시대의 지식을 규정짓는 중요한 담론체계의 일부라면, 당연히 푸코가 제기한 시대구분에 건축도 포함될 수 있고, 따라서 타푸리의 그것과 비교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클로드-니콜라 르두를 둘러싸고 계몽주의 시대 건축을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시각차이다. 이것은 하나의 건축이 각기 상이한 관점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세 번째는 감옥이라는 매우 독특한 건축장르를 중심으로 18세기 사회에 대한 두 사람의 이해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논점은 19세기 이후 진행된 유토피아에 대한 것이다. 타푸리와 푸코 둘다, 19세기 이후 나타난 건축적 유토피아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논점들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의 건축이 하나의 제도로서 근대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 4-1. 시대구분

시대구분은 한 역사가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았느냐를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푸코의 경우 르네상스 이후의 시기를 세 개의 에피스테메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에피스테메는 푸코에 의해, “지식의 공간 내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험적 인식을 야기시켰던 배치에 대한 것이라”<sup>37)</sup>고 정의되었다. 이들을 규명하기 위해 푸코는 당시 사용되었던 언어, 지각되고 수집되었던 자연의 존재들, 노동과 교환의 가치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시켰다. 이 과정에서 푸코는 르네상스 이후 서구 문화의 ‘에피스테메’에서 두 줄기의 거대한 불연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첫 번째 불연속은 17세기 중반에 일어난 것으로 이 때를 기점으로 르네상스가 마감되고 고전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본다. 두 번째는 19세기 초로 이때부터 근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38)</sup> 이런 시기 구분은 그의 저작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푸코가 관심을 집중시킨 시기는 주로 고전시대와 근대이다. 특히 고전시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그의 저작 전반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묘사되고 있다. 시대구분과 관련하여 푸코의 생각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말과 사물>이다. 이 책은 16세기 이래로 서구문화 속에 나타난 담론의 질서를 추적하고 있다. 여기서 푸코는 르네상스 시기에 지식은 ‘유사성(ressemblance)’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 시기에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유사한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했고, 기호들을 지배하는 법칙을 찾는다는 것은 유사한 사물들을 발견해내는 작업을 의미한다.”<sup>39)</sup> 그러나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이런 유사성은 사라지고, 지식의 새로운 배치가 나타나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분석이다. 그것은 사물의 동일성과 차이를 규명하는 것으로, 푸코는 이것을 통해 나타난 말과 사물 사이에 표상(representation)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 경우 사물들은 잘게 분할되어 무한히 연장되는 표면위에 병치되었는데, 그들은 일종의 표와 같이 분류되고 정리되었다. 건축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여 비들러(Anthony Vidler)는 브롱넬부터 시작하여, 르두, 불레, 뒤랑에 이르는 프랑스 건축가들의 활동을, 푸코가 구분한 고전시대의 에피스테메와 연관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19세기 초에 이르러 이런 고전시대의 에피스테메는 와해되는데, 그것은 말이 사물을 완벽하게 표상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하나의 분류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이 그 사물의 본성을 완벽하게 표상한다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18세기말부터 표상 공간의 토대, 기원, 한계가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질서화가 가능한 표상들로 구축된 공간은 해체되고 두가지

37) Michel Foucault, *Les mots et les choses, une archéologie des sciences humaines* (말과 사물, 이광래 옮김), 민음사, 18-19쪽.

38) 앞의 책.

39) 앞의 책, 41쪽.

새로운 지식들이 등장한다. 하나는 선형적인 철학이다. 여기서 유한한 인간이 객체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일반의 모든 형식적인 조건들을 결정하는 선형적인 차원들을 제시한다. 두 번째는 생명, 언어, 경제와 같이 실증성과 경험성을 근거로 한 학문이다. 이들은 현상을 전체화하여, 경험적 다양성에 대한 선형적인 정합성을 제시한다.”<sup>40)</sup> 그리고 푸코는 이런 두가지 생각들이 궁극적으로 선형적이면서 동시에 유한한 ‘인간’에 의존한다고 본다. 그래서 근대 이후 모든 지식의 근거로서 인간중심주의(Antropologie)는 근대의 에피스테메를 특징짓는 것으로 보았다. 푸코를 포함한 후기구조주의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근대 이후 인간 중심의 주체는 자신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자를 억압하고 말살시킨 것이다. 질 들뢰즈는 욕망을 통해, 데리다는 텍스트의 해체를 통해, 미셸 푸코는 광기와 성의 역사를 통해 이런 동일성을 부수버리려고 한다.

시대구분에 있어서 타푸리는 푸코와 다소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먼저 타푸리는 푸코처럼 직접적으로 시대구분을 언급한 적이 없다. 또 간접적으로 언급하더라도 글의 주제에 따라 시대구분은 조금씩 달라졌다. 가령 <근대건축과 역사의 종말>이라는 글에서는 기존의 예술사적인 시대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르네상스(14-5세기)-매너리즘(16세기)-바로크(17세기)-계몽시대건축(18세기)-근대건축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이 시기 동안 일어난 건축현상을 중심으로, 횡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와 유토피아>를 살펴 보면, 타푸리는 이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더 이상 18세기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계몽시대(18세기)의 도시계획과 거기서 나타나는 자연주의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어 이 책의 두 번째 장에서 19세기에 나타난 철충주의적 경향을 서술하고 있다. 푸코가 이 시기부터 이전의 고전시대와 커다란 단절이 생

겨나면서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이 시기에 대한 타푸리의 생각은 다소 애매모호하다. 철충주의적 건축양식과 푸리에, 오웬, 카베 등에 의해 제안된 공산주의적 유토피아를 거론하지만 시대적인 특성은 명확하지 정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푸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한 부분은 20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이루어진 아방-가르드와 근대건축가들의 활동이다. 이런 태도는 주로 18세기와 19세기의 건축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권력과 공간의 문제를 드러내려 했던 푸코와는 다르다. 이것은 근대 이후 서구의 역사를 바라보는 두사람 사이의 입장차를 잘 대변한다. 푸코가 18-19세기의 건축을 중시한 것은 근대 이후의 권력과 공간의 관계가 이때부터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건축뿐만 아니라, 의학, 사법제도, 지식의 담론에 있어서 근대적인 모델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본다. 건축적으로 보자면 부르조와적인 윤리가 개개주택부터 전국토에 이르는 공간속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의학적으로는 임상의학의 탄생을 통해 신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등장했고, 사법적으로는 신체형 대신에 감시와 처벌의 근대적 사법제도가 확립되었다. 이에 비해 타푸리는 건축과 도시계획이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에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18세기로 보지만, 20세기 초반에 이르러서 그것이 가장 명확한 형태로 등장했다고 본다. 이것은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이 18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 초반에 하나의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완성되었다고 보고,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전체를 자본주의 생산체제와 연관시켜 하나의 동질한 시기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단지 시기의 구분은 그것의 전개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중간단계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타푸리와 푸코가 근대서구 사회의 역사를 구분하는 태도는 그들이 가지는 관점을 명확히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 4-2. 계몽시대건축

이런 시대구분을 바탕으로 건축에 대한 두

40) 앞의 책, 290-291쪽.

사람의 이해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이를 위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건축가나 건축현상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푸코와 타푸리가 동시에 언급되는 건축가는 계몽주의 시대 건축가인 클로드-니콜라 르두이다. 그의 건축은 이 두 사람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된다. 그리고 그것은 계몽주의 시대 건축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차를 분명히 보여 준다.

타푸리는 계몽주의 시대를 그리면서 도시의 건설에서 나타난 자연주의와, 뒤랑, 르두, 블레 등의 프랑스 건축가들의 작품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 먼저 로지에(Marc-Antoine Laugier)에 의해 대변되는 도시의 자연주의는 “초기 자본주의 부르조아들이 (도시환경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시도했던 것들이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믿게 하고, 그들이 성취한 것들을 공고히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본다. 그리고 새로운 자본주의적 생산과 교환방식이 ‘가치들’을 측정가능한 것으로 만들면서 기존의 가치 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데, 이 시기의 낭만적 자연주의는 이것을 새롭게 승화시켜서 당시 사람들이 그 위기를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렸다.” 이것이 도시를 자연적인 숲처럼 만들자는 낭만적 자연주의의 역사적 의미라고 타푸리는 보았다.

이런 도시적 개념과 함께 18세기 건축도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새로운 경제체제와 부르조와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기술생산의 토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건축가들은 과거의 양식들을 급진적으로 파괴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것은 두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반(反)유럽적인 모든 것을 찬양하는 것이다. 중국식, 힌두식, 고딕식 건물을 연상시키는 모든 유행들, 그리고 가짜 유적이거나 이국적 정자의 익살이 담겨 있는 정원조경의 낭만적 자연주의는 그 예이다.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붕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건축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상징적 역할을 거부하고, 그것의 과학적 소임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바로

여기서 건축 유형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뒤랑, 뒤뷔, 그리고 르두의 ‘말하는 건축(l’architecture parlante)’은 바로 이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처럼 18세기 계몽주의 건축은 새로이 대두된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일부가 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 위해, 그 자체를 재조정하고, 과거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통일성을 부수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18세기 도시와 건축에 대한 타푸리의 인식이다.

미셸 푸코도 역시 건축이 서구역사에서 주요 담론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18세기 이후라고 생각한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사회지배를 위한 테크닉으로 건축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sup>41)</sup>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형성된 담론들 속에는 도시계획, 집합시설, 위생시설, 개별주택 등이 주된 주제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푸코는 이런 변화가 건축가들의 주도적인 제안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로 정치인들의 생각에 나왔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그는 타푸리와는 달리 건축가가 권력의 장에서 자율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본다. 그들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조차 전체 사회의 흐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중요했던 노동자 주거의 건설이나 도시계획을 주도한 사람들이, 보자르 출신의 건축가가 아닌, 에플 폰제쇼세 출신의 행정가였던 점은 이 사실을 입증한다. 푸코가 보기에 18세기의 건축적 담론은 한 국가의 영토를 전체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공간을 도시처럼 규제의 틀 속에 집어 넣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그것은 도시에서 터져나온 불온한 기운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또 전염병의 창궐로 인한 혼란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이 개인의 일상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였다.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도시화는 인구의 급속한 팽창을 불러 왔고, 이것은 주거난을 가중시켰다. 도시의 환경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41) Michel Foucault, ‘Space, Knowledge and Power’, interview with Paul Rabinow, Skyline, 1982년 3월.

이로인해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도시를 휩쓸고 지나갔다. 따라서 이 시기에 도시와 건축의 문제는 단순히 축조하는 행위가 아니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공간을 구분 짓고 일상의 작은 일까지도 보고받는, 그래서 감시의 그물망이 공간 곳곳에 스며들도록 하는 권력의 연관된 것이었다. 이때부터 전통적으로 통제되지 않았던 공간은 마치 잘 짜여진 시스템처럼 조직되었고, 계속해서 감시의 시각이 그것을 관통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은 푸코의 저작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그가 제시한 건축물들, 가령 르두의 제염공장과 밴딤의 일망감시시설은 부르조와들의 지배를 위한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타푸리는 르두의 제염공장(Saline de Chaux)을 평가하면서 기존 건축언어를 파괴하여, 자본주의 생산체제에 맞게 변경한 건축가로 평가한 반면, 푸코는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건축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본다. 타푸리가 주목한 것은 르두건축에서 등장하는 각 건물들의 유형들이다. 르두가 제안한 각각의 건물들은 그 기능에 따라 각기 다른 건물유형을 가진다. “잘 알려진대로 그는 하천 측량사의 집을 위해 거대한 배수구의 디자인했고, 술통제조업자를 위해 술통모양의 집을 마찬가지로 디자인하였다. 집의 형태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직업에 따라 결정되는 소위 ‘말하는 집(architecture parlante)’가 출현한 것이다.”<sup>42)</sup> 이처럼 르두가 제안한 건물들은 기존의 건축언어를 파괴하고, 대신 건물기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한 것이다. 타푸리가 보기에 르두의 이런 시도가 이것이 막 형성되던 자본주의의 생산활동에 적합한 건물형태를 나름대로 정의하려 하였고, 그것의 형성을 건축적으로 도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비해 푸코는 제염공장의 원형의 배치와, 거기서 관리자 사무실이 중심에 위치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즉, 원형의 배치가운데 중심에 있는 높은 건물은 관리라는 행정적 기능, 감시라는 치안유지적 기능, 단속과 검사라는

경제적인 기능, 복종과 노동의 장려라는 종교적인 기능들을 두루두루 함께 갖도록 만든 것이다.”<sup>43)</sup> 그것을 통해, 관리자는 노동자들의 행동을 쉽게 관찰하고, 그들을 부단히 평가하며, 이를 통해 그들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감독자가 그냥 불쑥 나타나더라도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 눈에 판단할 수 있도록 전체배치가 설계된 것이다. 여기서 권력은 미세한 형태로 사회전체로 확산되어 감시망을 구축한다고 본다.

타푸리와 푸코가 르두의 건축에 대해 내린 이런 해석들은 건축자체에 기반을 둔 기존의 해석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어서 주목할만하다. 르두의 건축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한 아틀러는 “제염공장이 원형으로 계획된 것은, 역할과 기능에 따라 정확하게 특장지워진 각 생산시설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기능적인 측면 외에 또한 그것은 르두의 머리속에 있는 상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르두는 제염공장을 공공의 장으로서 고대 원형극장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것은 제염공장을 통해 그가 가졌던 정치, 사회적 이상주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다.”<sup>44)</sup> 라고 평가하였다.

#### 4-3. 감옥

푸코와 타푸리가 둘다 계몽시대 건축을 언급하면서 공통적으로 감옥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사실 감옥이라는 건축장르는 지금까지 건축역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그것은 건축사 서술의 핵심인 양식이나 공간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좋은 예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푸코와 타푸리 왜 이것을 주목하였을까? 이 두사람 다 건축을 사회제도의 일부로서 바라보았고, 그런 의미에서 감옥은 권력이 행사되는 모습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인간의 신체를

43) Michel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감시와 처벌, 오생근 옮김), 나남출판, 261쪽.

44) Antony Vidler, 앞의 책, 49쪽.

42) Anthony Vidler, 앞의 책, 447쪽.

처벌하고 억압함으로써 사회적 금지에 대한,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적절한 통제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사람은 매우 상반된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제레미 벤담이 제안한 일망감시장치(Panopticon)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것의 원리는 이렇다.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 싸여 있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형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다. 그리고 주위의 건물은 안과 밖이 모두 창으로 된 독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중앙의 탑속에 한명의 감시원을 배치하면, 역광선의 효과를 인용하여 주위건물의 독방 속에 감금된 사람의 윤곽을 탑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sup>45)</sup> 푸코는 이런 감시시설을 18세기의 전체 사회현상으로 확장시킨다. 비슷한 시기에 이런 식의 건물배치가 단순히 감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간호하는 병원, 수도원의 기숙사,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학교, 군사학교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장치를 통해 “권력은 자동적인 것이며, 비 개성적인 것이 된다. 우연히 걸려든 그 누구라도 이 기계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장치를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이건 상관없다. 오히려 익명적이고 일시적인 관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금자는 더욱 간파될 위험과 관찰된다는 불안한 의식이 더욱 증가된다. 따라서 일망감시장치는 아주 다양한 욕망으로부터 권력의 동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매우 경이적인 기계장치인 것이다.”<sup>46)</sup>

만프레도 타푸리 역시 미셸 푸코와 마찬가지로 감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피라네시(Giovanbattista Piranesi)가 감옥(Carceri d'inventione)에 대해 그린 일련의 동판화를 주목하였다. 이것은 각기 내용이 다른 도판으로 구성된 것으로, 거기에 담긴 그림의 분위기가 매우 목시론적이어서, 제레미 벤담의 그것과

대조적이다. 그 가운데 타푸리가 주목한 몇가지 도판들을 살펴보자. 먼저, <도판 II>에서는 과거 고전적인 건축을 배경으로 여러개의 장면들이 별다른 질서없이 화면을 메우고 있다. 끔찍한 고문기구들과 그것에 의해 고통받는 인간들의 모습은,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묘사한 군주제 아래서의 끔찍한 신체형을 연상시키고 있다. <도판 II>에서는 감옥의 이미지가 비록 무질서한 파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배경을 이루는 구조물들이 비교적 일관된 원근법으로 그려져 있어서 전체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도판 VII>에 이르면 이같은 시각적인 일관성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공간내부의 구조물이 매우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체 모습은 각기 시점이 다른 곳에서 바라본 장면들이 혼합되어 있다. 또 화면 하단부의 아치를 제외하고는 고전적인 건물들을 암시하는 모티브도 전혀 없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화면속의 공간은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도판 II>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없지만, 이 도판의 분위기는 더욱 끔찍해 보인다. 공허함과 불안정함 그리고 단절과 무질서함이 화면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은 도판 <IX>에서 더욱 확대된다. 타푸리는 감옥에 대한 전체 시리즈 가운데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런 그림을 통해, 피라네시는 당시 건축에 나타났던 질서의 위기, 형태의 위기, 고전적인 정취(Stimmung)의 위기를 보여 준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공간개념의 파괴는, 당시 유럽사회에서 급격한 변화를 통해 등장했던 새로운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이 동판화에서 나타나는 건축의 공간, 즉 감옥은 무한한 공간이다. 파괴되는 것은 그런 공간의 중심이다. 총체적인 무질서는 고대적 가치의 파괴와 일치한다. 그런 파괴를 일삼는 주체인 이성도 불가피하게 비이성적인 것을 산출하게 된다. 우리가 피라네시의 ‘감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해방된 새로운 실존적 상황이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해방되지만 동

45) Michel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앞의 책, 293쪽.

46) 앞의 책, 298-9쪽.

시에 운명지워진 것이다. 계몽시대의 사회적 약속에 대한 반동적인 비판을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가치와 그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된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명료하게 예언하고 있다.”<sup>47)</sup> 이때 이후 대도시에 사는 인간들은 자유에 의해 열려진 전망에 의해 계속해서 비극과 조우하게 되고, 쇼크를 경험하게 된다.

미셸 푸코도 이런 피라네시의 그림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피라네시가 도안한, 사람들로 붐비며 온갖 형벌로 가득찬, 폐허같은 감옥과는 대조적으로 ‘일망감시시설’은 잔인하고 교묘한 동물원 우리의 모양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언급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피라네시의 감옥과 벤담의 감옥이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약 30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거의 동시대에 나타난 이 두가지 사실을 두고 매우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를 위해 먼저 이 두가지 그림사이에 나타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교해 보자. 벤담의 감옥은 기하학적인 완결성을 가지며, 그 중심이 전체 공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푸코는 여기서 18세기 사회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보편적인 모습을 이끌어냈고, 사회 곳곳에 침투한 감시의 편재성을 보았다. 이와는 달리 피라네시의 감옥은 매우 무질서하며, 비원근법적이며, 중심이 파괴된 공간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푸코가 이야기한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본다. 이것을 통해 타푸리는 앞으로 다가올 대도시에서의 현실을 상상하였고, 그런 현실은 20세기에 실제로 실현되었다고 본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우리의 대도시 현실에서 지금도 나타나는 양면성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엄격한 기하학적 질서 속에 놓여 있지만, 익명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감시의 대상이 되는 그런 현실이다. 또다른 하나는 빠른 변화로 인해 과거의 질서가 계속해서 해체되면서, 사람들은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자신들의 고정된 생각들을 계속해서 바꿔야 하고, 그 과정에서 쇼크를 받는 현실이다. 건축은 이 두가지를 현실 속에 펼쳐진 대상인 것이다. 다만 푸코는 그런 현실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반면, 타푸리는 전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차이점이다.

#### 4-4.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에 관한 논의는 타푸리와 푸코 모두에게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헤테로토피아와 관련된 몇가지 점에서 (비록 푸코로부터 타푸리가 영감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 두사람은 공통된 태도를 표명하고 있어서 주목할만하다. 따라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볼 경우 이 글에서 도달해야 할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타푸리는 계몽시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토피아적인 제안들, 즉 르두의 이상도시, 샤를 푸리에의 팔랑스테르, 산텔리아의 미래도시(Citta nuova), 하워드드의 전원도시(Garden City), 르 꼬르뷔제의 ‘빛나는 도시(Ville radieuse)’ 등은 하나의 일관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그것은 실제 도시의 건설과는 전혀 상관없고 단지 자본주의의 생산체제를 보다 공공히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같은 유토피아들은 독특한 부르조와들의 사고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부르조와 윤리의 근본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운명을 금욕적으로 수용하는데 있다. 그것은 도시속의 운명에 의해 촉발되는 비참함과 궁핍을 보충하기 위해 현실을 승화시킴으로써 일어난다.” 이 경우 예술, 건축, 도시계획에 종사하는 예술가와 지식인들은 이데올로기리스트로서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억압을 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물론 이들이 현실을 승화시키는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예측불가능한 미래의 운명을 현재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구체화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리고 “질서

47) Mafredo Tafuri, *Projet et utopie*, 앞의 책, 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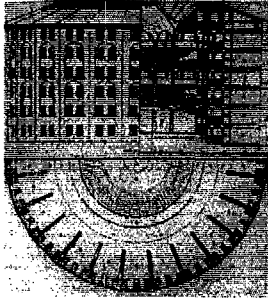


그림1. 제레미 밴덤의 원형감시시설



그림2. 피라네시의 감옥, 도판II



그림3. 피라네시의 감옥, 도판VI



그림4. 피라네시의 감옥, 도판 IX

를 통해 무질서를 통제하고 인간의 전체성을 이상적으로 통합하는 길은, 유토피아의 형태로만 가능하다.”<sup>48)</sup> 이것이 타푸리가 쓴 <프로젝트와 유토피아>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만프레도 타푸리는 20세기 초에 등장한 예술의 아방-가르드들과 막스 베버(Max Weber),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 칼 만하임(Karl Manheim)과 같은 20세기 초반의 독일 지식인들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타푸리가 보기에, “만하임 뿐 아니라, 케인즈, 슈페터, 그리고 막스 베버에게 부과된 과제는 긍정적인 것(자본)과 부정적인 것(노동자의 노동) 전체가 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를 찾는 것이었다.”<sup>49)</sup> 이 경우 막스 베버가 제기한 ‘가치중립성(Wertfreiheit)’, 만하임이 제기한 유토피아의 개념, 그리고 짐멜의 사회학 등에서 “하나의 같은 주제가 담겨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미래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위험이 배제된 미래, 현재가 완전히 투사된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었다.”<sup>50)</sup> 이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당연한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가령 베버가 제기한 가치중립의 개념은 자본주의적 경제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든 질적인 대상들, 가령, 신비적 요소들, 가치판단, 각 개인의 주관성 등을 모두 양적인 것(화폐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것은 그가 이야기한 합리성의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만하임이 제기한 유토피아의 개념은 자본주의의 시스템내에 담겨 있는 역동성을 해방시키는 도구이다.”<sup>51)</sup> 타푸리가 보기에, 만하임이 정의한 “유토피아의 개념도 부정적인 것을 배제한 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미 프로그램화된 장 속에서만 작동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베버와 만하임에게, 이데올로기 비판은 발전을 위한 역동적인 요인이 된다. 그리고 유토피아는 기존 현실 속에서만 작동되

48) Mafredo Tafuri, *Projet et utopie*, 앞의 책, 46쪽.

49) 앞의 책.

50) 앞의 책, 50쪽.

51) 앞의 책.



는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모델들을 예시하는 것이다.

20세기 초에 펼쳐진 아방-가르드의 활동에서도 이들 지식인들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타푸리가 보기에 “20세기 아방가르드들의 임무는 자본주의 체제하의 대도시에서 나타는 특징들을, 가령 예를 들면 움직임의 속도감, 동시 발생적인 소통조직, 소비시간의 가속화를 시각적 코드로 담아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예술적 경험을 순수한 오브제로, 혹은 상품화한 오브제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계급의 문제를 초월하는, 그럼으로써 반-부르조와적인 것으로 보이는 통합된 이데올로기로 대중들을 미혹시킨다고 보았다. 그것이야말로 20세기 모든 아방가르드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정된 기능들이다.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몽타주 수법은, 실제세계에서 등장하는 대상물들을 인위적으로 조립하여 메트로폴리스가 가져다 주는 쇼크의 경험을 중성화시키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타푸리는 20세기 초반의 아방-가르드들의 활동이 메트로폴리스가 사람들에게 주는 쇼크를 약화시키고, 그것을 마치 존재의 불가피한 조건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유토피아에 대한 푸코의 생각은 타푸리와는 다른 맥락에서 도출된다. 푸코는 18세기 이후 다양한 권력들이 배열되어 있는 담론의 공간을 정의하면서 두가지 유형이 가정하는데, 거기에는 유토피아의 공간과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 가운데 유토피아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성격을 갖는다. 먼저, 그것은 “실재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배열이다. 그들은 실제 사회와 직접적인 유사성 혹은 그 반대의 관계를 가진다. 그들은 완벽한 사회 그자체, 혹은 그 반대를 대변한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유토피아는 본질적으로 비현실적인 공간이다.” 두번째로 유토피아는 위안을 준다. “비록 그것이 어떤 실재적인 장소를 점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전개될 수 있는 균질의 공간이 있다. 유토피아로 향하는 길은 공상적일지라도

거대한 가로수 길과 훌륭하게 꾸며진 정원을 갖춘 도시들로 열려있다.”<sup>52)</sup> 이것이 근대까지 담론의 장 속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유토피아의 개념이다. 푸코는 이런 유토피아의 개념이, 근대를 특징짓는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이며 신화라고 생각한다. 그는 우리의 사회가 이것 대신 헤테로토피아로 특징지워 진다고 생각한다.<sup>53)</sup> 그러면서 그가 계보학을 통해 발전시킨 다양한 개념을 여기에 집어넣고 있다. 먼저, 그것은 유토피아에 비해 혼란스럽다. 유토피아가 선형적으로 배열되어서 매우 명료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는 담론이나 말의 의미를 분쇄시키고 해체시키기 때문이다. 말과 사물 사이를 결합하는 통사법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기원을 반대하고, 선형적인 인과성을 피하면서, 힘의 복수성을 가정한다. “그리고 하나의 실제 공간에서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간들이 공존하도록 하는 힘을 가진다. 또한 그것은 사회제도 속에서 윤곽 그려지고 실행되는 실제 공간이지만, 현실속에서 위치잡고 있는 모든 장소의 바깥에 위치한다. 그 장소들은, 그들을 반영하는 모든 배열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타자의 장소이다.

이런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을 수용하는 타푸리의 입장은 다소 모호하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긍정정적인 대안으로 인정하지만,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푸코와 같은 방식이 아닌, 현재의 지배적인 질서를 부정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해 허위의식을 밝혀낼 때 이런 헤테로토피아가 보다 명료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타푸리의 태도에서 막시스트들이 가지는 한계와 덕목을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 5. 결론

52) Michel Foucault, *Les mots et les choses*, 앞의 책, 14쪽.

53) 앞의 책.

타푸리와 푸코의 역사이론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1) 타푸리의 이데올로기 비판과 푸코의 계보학적 방법론에서, 건축은 똑같이 사회제도의 일부분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것은 권력과 경제체제를 현실로 전환시키는 그런 장소인 것이다. 그러나 타푸리의 경우,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공공히 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래서 계몽시대 이후의 모든 건축적 제안들이 부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건축의 진실은 그 후어나 접근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푸코는 모든 담론이 상대적이며, 권력은 그런 담론에 의해 만들어진다. 건축은 그런 담론과 권력이 구체화된 장소이다. 따라서 그에게 건축과 공간은 오직 그것이 속한 장(場) 혹은 맥락을 통해서만 상대적으로 선악이 판단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과정과 건축과 도시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룬 타푸리와는 달리, 푸코는 권력이 공간 속으로 스며드는 과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푸코나 타푸리 둘다 사건들의 인과적이고 선형적인 배열을 통해 역사서술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대신 단절되고, 파편화된 역사서술을 통해 감춰진 진실이 드러난다고 본다. 그들은 또한 현재의 관점에서 모든 과거의 사실들은 해체되고 구축되는 입장을 취한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역사의 엄밀함과 정확성 보다는 현재적 관점에서의 유용성이 된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점에서 이 두사람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먼저 타푸리는 역사전개에 주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막시즘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억압받는 존재이다. 그것은 모든 논의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푸코는 이런 주체개념을 거부한다. 대신에 그는 역사속에서 구조화된 주체들의 위치만을 나타내려고 한다. 두 번째는 타푸리는 18세기 이후 지금까지의 시기가 자본주의 체제라는 하나의 동질한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푸코는 이 시기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연속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

러면서 이것을 사이로 지식의 담론이 완전히 바뀐다고 본다. 세 번째로 타푸리는 역사속에서 권력이 계속해서 특정계급에 봉사한다고 본다. 이에 비해 푸코는 권력은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변화하며, 또 정치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미시적으로 스며들어 있다고 본다. 이런 시각차를 가지고 건축을 바라볼 경우 엇갈린 해석이 나타나게 된다.

## 참고문헌

1. 김유동, 아도르노와 현대사상, 문학과 지성사, 1997년
2. '미셸 푸코와 그 효과', 세계사상, 1997년 여름, 동문선
3. 송호근, 지식사회학, 나남, 1990년
4. 윤효녕 외 3인, 주체개념의 비판, 서울대출판부.
5. 이광래, 미셸 푸코, 민음사, 1997년
6. 임종철, '마르크스의 유물사관', 사관이란 무엇인가?, 청람
7.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현대사회와 마르크스주의 철학, 동녘
8. Benjamin, Walter, 문예비평과 이론(이태동 옮김), 문예출판사
9. Cacciari, Massimo, Eupalinos or Architecture, in Opposition, 21권, 1980년 여름호
10. Dreyfus, Hubert L., Rabinow, P.,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서우석 옮김), 나남
11. Foster, M., 푸코, 마르크시즘, 역사 (이정우 옮김), 인간사랑.
12. Foucault, Michel, Histoire de la folie à l'age classique (광기의 역사, 김부용 옮김), 인간사랑
13. Foucault, Michel, Les Mots et les choses(말과 사물, 이광래 옮김), 민음사.
14. Foucault, Michel, Naissance de la clinique(임상의학의 탄생, 홍성민 옮김), 인간사랑
15. Foucault, Michel, L'Archéologie du savoir(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옮김), 민음사.
16. Foucault, Michel, L'ordre du discours(담론의 질서, 이정우 옮김), 셋길
17. Foucault, Michel, Ceci n'est pas une pipe(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김현 옮김), 민음사
18. Foucault, Michel, Histoire de la sexualité I (성의 역사 I, 이규현 옮김), 나남
19. Foucault, Michel, Power/Knowledge (권력과 지식, 홍성민 옮김), 나남.
20. Foucault, Michel, Des autres espaces, Architecture Mouvement Continuité, 1984년 10월
21. Iggers, Georg G., Historiography in the Twentieth Century, From Scientific Objectivity to the Postmodern Challenge (20세기 사학사, 임상우, 김기봉 옮김), 푸른역사
22. Larrain, Jorge, Marxism and Ideology (맑스주의와 이데올로기, 신희영 옮김), 백의.
23. Llorence, Thomas, Manfredo Tafuri : Neo-Avant-Garde and History, in Architectural Design, 51권, 1981년 6월-7월
24. Manheim, Karl, Ideologie und Utopie(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임석진 옮김), 청아출판사
25. Merquior, J.G., Michel Foucault (푸코, 이종인 옮김), 시공사
26. Ockman, Joan(ed.), Architecture and Critique of Ideolog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5년
27. Ockman, Joan(ed.), Architecture Culture 1943-1968, Columbia Books of Architecture, 1999년
28. Sarup, Madan, 테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사랑.
29. Smart, B., Foucault, Marxism and Critique(마르크스주의와 미셸 푸코와의 대화, 이유동, 윤비 옮김), 만글
30. Tafuri, Mafredo, Architecture and Utopia, MIT Press, 1976,

31. Tafuri, Mafredo, *Theories and History of Architecture*, Harper and Row, 1980
32. Tafuri, Mafredo, *Modern Architecture*, MIT Press, 1980
33. Tafuri, Mafredo, *The Sphere and the Labyrinth*, MIT Press, 1990
34. Teysot, Georges, '*Heterotopias and the History of Architecture*', in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ed. K.Michael Hays), Columbia Books of Architecture, 1998.

# A Comparative Study on the Historical Concept of Michel Foucault and Manfredo Tafuri

-Architecture, Ideology, and Geneology of Power-

Jung, Inha  
(Hanya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compare the architectural thought of Michel Foucault with that of Manfredo Tafuri in order to make clear the architectural identity as a social institution. In Michel Foucault's case, the archeology of discourse and the geneology of power were central method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occidental society since the Renaissance. For him, architecture is assumed as a mechanism of operation which make the power effectively radiate in the space. He thinks that a new discursive space was arranged since the 18th century in Europe, the architecture played a role to coordinate diverse powers. Manfredo Tafuri, architectural historian, depends on the criticism of ideology in search of the relation between the economic system of capitalism and modern architecture and urbanism. He thinks that all architecture is an institution. And any attempt to overthrow the institution, is bound to see itself turned into a positive contribution and into an ideology. So all architectural attempts to conceal the contradiction of capitalism are negated. This different perspective on architecture exposes many points of dispute: historical periodization, disciplinary limit of architecture, understanding of Enlightenment architecture, utopia and heterotopia, etc.